

 금융위원회	<b>보 도 자 료</b>			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
	<b>보도</b>	<b>배포 시부터 즉시</b>	배포	2017.3.30(목)
<b>책 임 자</b>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신 진 창(02-2100-2990)	<b>담 당 자</b>	김 준 사무관 (02-2100-2994)	
	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고 광 희(044-215-2750)		이 준 우 사무관 (044-215-2752)	
	행자부 지역금융지원과장 조 성 환(02-2100-4280)		류 병 옥 사무관 (02-2100-4286)	
	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최 봉 순(044-201-1751)		김 경 은 사무관 (044-201-1760)	
	해수부 수산정책과장 황 종 우(044-200-5420)		박 천 일 사무관 (044-200-5429)	
	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 윤 차 규(042-481-4190)		김 동 성 서기관 (042-481-4155)	
	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 김 태 경(02-3145-7550)		이 창 운 팀장 (02-3145-7447)	
	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 임 철 순(02-3145-8160)		정 대 헌 팀장 (02-3145-8168)	

## 제 목 : 2017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

-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및 경영현황 점검 등 주요현안 논의
- 관계부처와 각 상호금융 중앙회, 개별 조합·금고가 **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** 안착, **건전성 관리(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 강화 추진 등 상호금융권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**를 위해 노력할 예정

□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.30일(월), 「2017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\*」를 주재하여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및 경영현황 등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감독방향 등을 논의

\* 상호금융권 규제·감독체계 정비 및 정책공조 활성화를 위해 매분기 개최

- 동 회의에는 기획재정부,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, 행정자치부, 산림청, 금융감독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

□ 정은보 부위원장은 은행권과 달리 금년 들어서도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다소 높은만큼

- 국내금리 상승시 **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차주의 부실이 확대**되어 **조합들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**을 미치지 않도록
- 상호금융권의 **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함**을 강조

□ 관계부처와 각 상호금융 중앙회, 개별 조합·금고가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**상호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**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

① 3.13일부터 시행한 상호금융권에 대한 **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\***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되도록 지원

\* 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·금고에 시행, 6.1일 전체로 확대 예정

② **고위험대출 범위 확대 및 추가충당금 적립률 상향(20%→30%)** 등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(3.24~5.3일 중 규정변경예고)

③ 각 금융회사가 당초 자체 계획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

□ 아울러, 상호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가 서민층의 자금 애로로 연결되지 않도록

- 개별 조합·금고가 **햇살론**을 적극 취급하고, **상반기중 취급예정인 사잇돌대출도 적극 공급**하도록 요청

<붙임> 주요안건 요약

□ (가계대출 동향) '16년말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말 대비 34.4조원 증가(행자부, 금감원 속보치 기준)

- 은행권은 작년 4분기 이후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따라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것과 달리,
- 상호금융의 경우 금년 들어서도 다소 빠른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지속되는 상황

< 가계대출 증감(행자부, 금감원 속보치 기준) >

(단위 : 조원)	'15년		'16년		'17년
	1~2월		1~2월		1~2월
상호금융*	+16.5	+0.0	+34.4	+2.1	+3.9
은행(주금공 양도분 포함)	+78.3	+5.1	+68.7	+5.0	+3.0

\* 새마을금고 포함

□ (평가) 상호금융권은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강화의 여파,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은행권과의 금리격차 축소, 영업확대 전략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

- 반면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신용자가 많고,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낮아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발생 위험에 취약한 문제점 존재

□ (감독방향) 지난해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·추진하였음

-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한도(LTV) 산정기준 강화('16.10.31일 시행)

\* 비주택담보대출 LTV 한도 인하(80%~50% → 70%~40%), 가산비율 한도 인하(10%p → 5%p) 등

- 주택담보대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('17.3.13일 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·금고에 시행, '17.6.1일 전체로 확대 예정)

\*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객관적 소득증빙 제출,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잔금대출 등에 대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 등

□ 그러나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지속, 국내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건전성 감독 추가 강화를 추진중(3.24~5.3일 중 규정변경예고)

-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, 추가충당금 적립률도 20%→30%로 상향

\* (현행)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(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) 또는 다중채무자 대출(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)로서 '요주의 이하' 대출에 추가충당금 20% 적립

\* (개선)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(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) 또는 다중채무자 대출(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)로서 '정상' 및 '요주의 이하' 대출에 추가충당금 30% 적립

< 감독 강화시 상호금융 고위험대출 적용범위 >

분류		현행	강화
①	일시상환대출 및 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	3억원 이상	2억원 이상
	또는 다중채무자	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	(현행과 동일)
②	자산건전성	요주의 이하 대출	정상 대출 포함

※ ①+② 요건 충족시 고위험대출에 해당

□ 금감원 현장점검 강화 및 가계대출 월별 계획관리 등을 통해 상호금융권의 자체적인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를 유도

- 상반기중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르거나 집단대출이 과다한 조합·금고 등에 대해 금감원 현장점검\* 실시

\* LTV 적용기준 준수 여부, 집단대출 심사의 적정성,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준비상황 및 이행실태 등 대출취급의 적정성 점검

- 아울러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분할상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

- 각 중앙회가 지역별 점검 책임자를 통해 조합별 가계대출 변동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중앙회 및 지역본부 별도 대응

- 또한, 집단대출에 대해 각 중앙회 차원의 사전심사 강화 등을 통해 과다한 취급을 자제

## 1. 경영현황

- '16년말 상호금융조합은 3,582개(신협 904·농협 1,130·수협 90·산림 137·새마을 1,321)로 부실조합에 대한 구조조정 등으로 전년 대비 23개 감소
  - \* ('97말) 6,166개 → ('13말) 3,730개 → ('14말) 3,672개 → ('15말) 3,605개 → ('16말) 3,582개
- (조합원수\*) 3,640만명으로 전년(3,624만명) 대비 16만명(+0.4%) 증가 → 비과세 혜택으로 인한 준조합원 증가에 주로 기인
  - \* 준조합원 포함
- (총자산) 574.3조원으로 전년(533.5조원) 대비 40.8조원(+7.7%) 증가하였고, 1조원 이상 대형조합도 증가(54개→62개)
- (수익성) 당기순이익이 2조 1,527억원으로 전년(2조 957억원) 대비 570억원(+2.7%) 증가 → 여신규모 확대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에 주로 기인
- (건전성) 부실채권 감축, 그간 저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연체율\*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\*\*이 전년 대비 개선
  - \* 연체율 : 1.21%, 전년(1.62%) 대비 0.41%p 하락
  - \*\* 고정이하여신비율 : 1.41%, 전년(1.68%) 대비 0.27%p 하락

## 2. 평가 및 감독방향

- 자산건전성과 수익성 지표가 전년도에 이어 개선되는 등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,
  - 이는 저원가성 예금 및 대출자산의 증가 등 자산·부채의 양적확대에 크게 기인
  -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높고, 분할상환 비중이 낮아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 증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
- 금리인상 등의 리스크에 대비하여 가계대출,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,
  - 중앙회 및 조합의 자산운용 관리도 강화하도록 감독할 예정

## 1. 현황

- 상호금융권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'13.2월부터 '상호금융 조기경보시스템(EWS)' 도입·운영 중
  - 전반적으로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은 개선되고 있으나, 고질적인 위규행위가 상존하는 가운데 금융사고 발생도 지속
- ➡ 준법성 측면의 검사 및 상시감시 강화 필요

## 2. 2017년 운영 계획

- (중점관리조합) 전체 조합(3,582개)의 8.8% 수준인 316개\*를 중점관리조합으로 선정
  - \* 농협 95개, 수협 8개, 산림 12개, 신협 80개, 새마을금고 121개
- 모든 중점관리조합에 대해 금감원·중앙회 현장검사 실시
- (통합 상시감시시스템 가동) '17년 2분기 중으로 금감원의 통합 상시감시시스템\* 가동 → 금감원과 중앙회의 중층적 상시감시체계 구축
  - \* ADAMS : Advanced Detection And Monitoring System
  - 특히, 위규행위 및 금융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해 준법성 부문\*을 중심으로 시스템 산출결과를 금감원이 각 중앙회와 공유
    - \* 통합 상시감시시스템은 ①건전성 부문(경영분석시스템, 부실예측시스템)과 ②준법성 부문(위규적발시스템, 금융사고인지시스템)으로 구성
  - 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위규행위 혐의거래 및 금융사고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금감원·중앙회 공동 기동검사를 실시